

세일교통 노동조합¹⁾ 관련자 1차 구술(집담)

1. 구술자: 조준식, 이형로, 김석동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4월 6일
5. 구술장소: 경남 거제시 연초면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12분 59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보안대의 노조 탄압에 맞선 지원활동과 계속된 인연

조준식 : 제가 대통령님 변호사 시절에 찾아가게 된 계기가 보안대²⁾에 세 번째인지 네 번째 매를 맞고 옆드려있던 시기였거든요.³⁾ 그때 제가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전화기 코드를 집에서 빼가지고, 그 전화기를 품고 옆드려있을 때 [이형로를 가리키며] 이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겁먹었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럴 정도로 사실상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호사님을] 만나 뵈는데.

김석동 : 아마 세 번째 [보안대에] 불러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알았을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도 몰랐어요. [이 친구가] 숨겼어요.

조준식 : 여기(거제) 보안대장이 중심이 되고, 마산 쪽에서 파견을 두 사람이 따라와 가지고 세 사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새벽에 네 번째 제가 보안대에 잡혀갈 때, 아마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또 두 사람이 와서 저희 집에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해서 ‘나 알겠어?’ 이러더니 ‘너 이 새끼야. 기관모독죄로 오늘 연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힘이 없고 하니깐 연행이면 연행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갔지만은 그때부터는 제가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왜 가졌냐 하면은 후원자들이, 저를 도와주는 분이 안계십니까? 김영식⁴⁾ 신

1) 거제 지역의 버스회사로 1982년 처음 노조가 설립됐다. 세 명의 구술자가 노무현을 만난 1985년 즈음엔 70~80여 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2) 정식 명칭은 국군보안사령부(현재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지역별로 보안대를 뒀다. 군사에 관한 첩보 수집과 대간첩·대테러 작전 지원, 군 범죄수사 등을 담당하지만 당시에는 민간을 사찰·감시하고 개입하는 공안기관 역할을 했다.

3) 세일교통 노조 초대 위원장 조준식에 대한 탄압은 1985년 어용노조화를 피하며 회사 측이 내세운 후보를 누르고 2대 위원장으로 연임하면서부터 본격화된다. 조준식은 당시 보안대에 수차례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에도 세일교통 노조 설립으로 보안대의 탄압과 해고를 겪은 조준식이 조합장으로 복직되는 이야기가 나온다(222~223쪽).

부님하고 노무현 변호사 두 분이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받았던 모든 탄압들을 정리해서 이미 두 분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죽으려면 죽으세요. 저는 허깨비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탄압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변호사한테 다 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크게 한번 싸움을 할라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먼저] 김영식 신부님한테 가게 되었어요, 그때 연행된 그날. 가서 [보안대가 신부님께] 기록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노무현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보안대 차를 타고 대통령님 변호사 사무실 앞까지 갔어요. 앞에 갔는데 자기네들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가서 기록만 가지고 오래요, 안 그러면 바로 연행한다고. 그 옆에 다방에 있을 테니까 다방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 두 친구들이 아침에 내가 연락이 없으니까 수소문을 해보고,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한잔 하고 [변호사님이] ‘자료를 안 줄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안대 요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방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곧바로 따라올라 갈게’ 이렇게 변호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다방에 갔어요. 가니까 ‘받아 왔어?’ 이렇게 요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줄라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서 또 저를 공갈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새끼 이거 큰일 날 놈이네’ 거기서 한참 제가 이야기를 듣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순간에 대통령님이 다방에 쏙 들어오시면서 나를 눈치를 보고 다방 마담하고 인사를 하면서 ‘오늘이 집에 손님 많네요’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꾸벅 하니깐 ‘아, 아직 안 갔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라고, 한쪽으로 들어와서 좌석에 앉으니까 노무현 변호사를 몰랐던 모양이야 그런(보안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 분이 노무현 변호사야?’ 이렇게 묻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니깐 속의를 하더니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합석해가지고 만났는데 [변호사님이] ‘자료를 지금 제가 안기부에다가 친구한테 보관해놔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 수 없겠냐’ 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니깐 저를 동행을

4) 김영식 신부는 당시 마산교구 소속 거제본당(本堂)에 있으면서 구술자들을 도왔다. 서울의 함세웅 신부, 부산의 송기인 신부와 함께 경남 지역에서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시켜서 다시 보안대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데요, 마산 쪽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조준식을 데려가면 그 기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또 속의를 하더니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안대 요원들은 떠나고 조금 있으니까 이 친구 둘이서 부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대통령님하고 차를 한잔 나누고 ‘오늘 저녁에는 거제로 안가면 좋겠다’ 이렇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셋이서 여관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보안대에서] 친구(김석동)한테, 외삼촌한테 전화가 왔나? 여관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당장 올라오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 모든 전화기에 다 도청이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형로한테는 제재 규정이 없고, 김석동은 계열 회사에 외삼촌이 근무하니까 [보안대가] 외삼촌을 죽친 겁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밥그릇 안 떨어질라고 외삼촌이 이 친구를 오라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참,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떨렸고. 그때 당시에는 눈물이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억도 조금 새롭지만,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도]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참 매일 같이 이제 이삼(2, 3)일 정도로 우리가 배를 타고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일만 있어도 가서 의논을 하고.

면담자 : 자주 가셨나 봐요.

이형로 : 예.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임금청구소송하고 마산지방법원에 해고 무효소송하고 두 군데 걸려가지고, 또 노동위원회도 이제

조준식 : 해고무효소송도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이형로 : 왔다갔다 매일 가서 거의 한 이삼(2, 3)일마다 다 올라갔어요.

조준식 : 고맙고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 최도술 씨가 사무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변론시간이 돼가지고 법원에 가실 시간인데 준비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가면은 [변호사님이] 사무장 보고 ‘사무장, 오늘 재판 연기해주세요’ 그러고는 저희들하고 앉아 노는 겁니다. 앉아 노시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고무공장에 여공들하고 (소송)하면은 다 돼 가면은 그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시집을 가버리고 아래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거제는 하면 참 재미가 있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뵈다보니까 대통령님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신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진리로 받아들인 거지요. 옳든 옳지 않던 간에 말씀만 듣고 그걸 그대로 저희들은 머릿속에 다

담았습니다. 담고, 그렇게 행동을 옮기고, 명령만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행동으로 가게된 겁니다.

면담자 :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런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지].

김석동 : 그때 대통령께서 변호사님 시절에 특히 우리 세일교통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어요. 왜 많이 가졌냐면은 진짜 운수업계가 이렇게까지 [노동자] 탄압을 많이 하고 [노동자들이] 탄압을 많이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데. 진짜 순수하게 노동자가, 순수한 근로자가 배가 고파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변호사님께서.

조준식 : 사실은 저희들이 가면 꼭 점심을 사주시더라고요. 가면은 변론도 미루어버리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연말이 되니까 또 망년회도 시켜주시고. 이런 속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여쭙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노동자들 쳐다보고 무료 변론하시면 변호사 사업이 안 어렵습니까?’ 이러니까 ‘참, 옛날에는 내가 부산에서 변호사 랭킹(ranking) 일이(1, 2)위를 했는데 요즘은 완전 꼴지’ 라고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미안한 감도 가지고, 참 수입도 없는 이런 봉사사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고맙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수입을 버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그 일을 헌신적으로 해주신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수입도 마다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니까 ‘인기를 가지고 뭔가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나’ 저는 그런 의심도 실제로 가졌어요. 가지면서 그때가 아마 전두환 정권 때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혹시 정치에 입문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러니까 ‘이 정치 속에서, 제가 흠탕물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 면서기조차도 하기 싫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더니 어느 날 김영삼 대통령, [통일]민주당인가? 그 공천을 받기에 또 ‘선택이 되셨는가보다. 가자. 밀자’ 이렇게 된 거지.⁵⁾

김석동 : 정치에 입문하실 때 말도 많았잖아요. 저쪽(창원·마산·진주)에서 따르는 분들은 반대를 했고. 지금까지 재야 운동권에 있다가 제도권에 들어가서 변질되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5) 조준식은 이와 관련해 “처음 출마하실 때 저희가 유세장을 인원 동원해가지고 가서 응원도 하고, 연고지에 다니면서 누구 좀 찍어달라고 부탁도 하고, 우리 대통령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저희도 과감하게 가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라고 구술했다.

‘지켜봐 달라.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약속은 지키셨죠.

■ **조준식 주요이력**

- 1951. 경남 김해 출생
- 1982. 세일교통 입사. 세일교통 노조 초대 위원장
2, 3, 4대 노조위원장
- 1991. 거제시 초대 시의원

■ **이형로 주요이력**

- 1950. 경남 통영 출생
- 1982. 세일교통 입사

■ **김석동 주요이력**

- 1951. 경남 사천 출생
- 1983. 세일교통 입사

조준식, 이형로, 김석동 세 사람은 거제도의 버스회사인 세일교통에서 함께 일했다.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982년 노동조합을 창립하고 ‘삼총사’로 불렸다. 노무현을 만난 건 1985년,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탄압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초대 위원장부터 세일교통 노조위원장을 네 번 연임한 조준식은 1991년 거제시 초대 시의원을 지냈다.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거제에 방문한 노무현 후보를 수행하는 등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 세일교통노조 변론과정은 초기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자서전 <운명이다>에도 등장한다.